

다들 뭐 하나
정말 즐겁다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절					경칩		3.8세계 여성일		3.10 총파업 정신계승 민중대회		장기이사회							춘분		세계 물의 날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3 학생자 수렴일	[특별강연] 제주4.3의 배경과 전개	신목일 청명	한식					장기이사회	[특별강연] 4.3특별법 제정운동							4.19 혁명		장애인의 날 국유				법의 날							

2023년 3월4월 회원 소식지 통권 178호 제주참여환경연대



2023 참여환경연대 회원 정기총회

2023년 2월 24일(금) 19:00
제주시소통협력센터 5층

4대 핵심사업 확정했어요!

- 1** 탈법적 환경평가 지침 헌법소원으로 찾는 주민참여권, 환경권
- 2**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서는 정의
- 3** 높아지는 삶의 질 "가로수 살리GO"
- 4** 20년의 내공, 마침내 "자원활동가 대회"

함께라 더욱 행복했던 2023 참여환경연대 총회 후기를 전합니다. 우리단체는 2월 24일(금) 저녁 7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제32차 회원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동부하수처리장 등 도내 주요 갈등 이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렇게 굽직한 갈등 이슈의 결정은, 우리 제주가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것임에 다른 없을 텐데요, 2023년, 벌써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될 조짐입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판단 아래, 이번 총회에서 2023년 4대 핵심사업을 확정·결의했습니다. **첫째**, 오동봉 민간특례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배제한 제주의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함께 결의했습니다. 해당 지침 문제는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의 환경권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반드시 각종 대응활동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참여권과 환경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쟁점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회피하는 악용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은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모 도의원의 폭로로 제주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해당 의혹 규명의 연장선상에서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옹호는 각종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셋째, 지난해 참여환경연대의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로수 사업도 지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2022 「가로수 살리GO」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가로수 모니터링과 가로수 학교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살리기 활동을 계속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모니터링 및 가로수 학교와 별개로 서광로 가로수길을 지키기 위한 가로수와 가로수 아래 생태계 스케치(세밀화) 프로젝트 "가로수 그리GO"도 진행할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원활동가대회를 개최하여 참여환경연대 자원활동가 2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며, 2022년 진행한 마을규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규약안 제정을 촉구하고, 마을 규약 속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을 발굴하여 알려 나가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조례개정 운동, 국비 확보를 필미로 사업을 강행하는 병폐를 막고자 하는 국비추천단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예요.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2023년 한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총회였지만,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고, 벅찬 총회였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운 받아, 올해는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활동을 뚝뚝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함께숲이되자, 참여환경연대!**



활동이모저모

1월

- 1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 회의
- 1월 5일 도청 소통팀장 내방 및 면담
- 1월 6일 기부경영수중 국제성 홀덱스 등록 완료
- 1월 9일 [면담] 펌프장 오수 무단방류 관련 주민
- 1월10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세종시, 제주제2공항행차저지비상도민회의)
- 1월 11일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정기총회
[기자회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대응승계 요구 기자회견
CBS라디오 시사매거진제주: 기관지 '여럿이함께슈미다'
KBS제주 집중진단: 제주 물관리계획
- 1월12일 2023.1-2 소식지 제작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자 회의
- 1월13일 [활력향연 보고서 마감] '마을 갈등, 그 뿌리를 찾아' 탈고
- 1월15일 한라생태길라잡이 정기총회
- 1월16일 [면담] 레이크공 문제 관련 주민 면담
- 1월18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총) 가로수시민연대 회의(총)
한라생태길라잡이 '가서 서 있는 나무에게' 발간 홍보활동
- 1월19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해충돌범 모니터링 회의(총)
- 1월21일-24일 설 연휴
- 1월25일 정치개혁추진행동 회의(민주노총)
서귀포시 민간위탁 관련 심의회(이길주)
- 1월26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의(홍영철)
[한라생태길라잡이] 공생과 함께하는 민오를 담다
- 1월27일 제주 지역보건외교계 공청회 패널(홍영철)
- 1월30일 2023. 1-2월 소식지 우편발송

2월

- 2월 6일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 2월 8일 KBS 집중진단 토론: 2023 제주 갈등연 해법
영산강-섬진강 제주권역 물관리 협의 거버넌스 포럼(경제통상진흥원)
2023 사업계획 초안 작성 완료 및 이사회 송부
- 2월 9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회 및 워크숍
- 2월1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회 및 워크숍
- 2월13일 정기 이사회 개최
[인터뷰] MBC뉴스: 한라산탐방예약제와 국립공원 이슈
- 2월15일 [논평] 편사의 위법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
[기자회견] 영리병원 2심 판결 관련 법원 앞 기자회견
- 2월16일 [한라생태길라잡이] 동행, 바람쐬 뽀뽀 함께하는 한라수목원 모니터링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도의회 토론회(홍영철 공동대표)
[교육] 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 법제도개선 세미나1
- 2월20일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휴식년 오름 모니터링 사전조사활동
- 2월22일 [성명] "공개를 위한 조례인가, 비공개를 위한 조례인가"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공모 심사 회의록 공개해야
활력향연2 정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 2월23일 [교육] 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 법제도개선 세미나2
- 2월24일 제32차 회원 정기총회
- 2월27일 KBS라디오 제주포커스: 회의록 공개 조례 관련



**도민이 결정한다!
도민은 결정했다!
제2공항 절대안돼!!**

**제주도민 있다!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하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락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락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되거나 반락했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란천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것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 공약 사안이 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임무 가내식 강행은 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자 제주인자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 자민에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락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락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초반이 팽팽했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따를 것이다. **2023. 3. 8.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사출신 변호사, 창피할까봐”
편사의 비공개 선고 특혜 사건으로 일반 국민들은 해당 편사에 의해 암묵적 차별을 받는 **2등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사의 위법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

약 1년 전, 김사 출신 변호사(선배)가 창피할까봐 관련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심O씨 편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의 한소심 판결(2.14)에서 재판부는 1심 편사의 비공개 판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비공개로 진행된 1심 선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비공개로 선고를 진행한 편사의 문제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편사에 대한 징계나 재발방지 조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 이례사되어 되겠습니까? 이미 해당 편사는 (불)명예퇴직을 했다는 현실, 경악스러운 따름입니다. 이에, 법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를 위한 조례인가,
비공개를 위한 조례인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이 세간의 유행처럼 떠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몇몇하던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월, 민간위탁기관 심사 회의록 비공개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는 탐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심사에서 23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제주장애인총연합회에는 탈락료, 대신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23년간 큰 문제없이 기관을 운영한 곳의 입장에서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지사일 텐데요. 제주도는 회의록 공개를 위해 만든 조례에 위헌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각종 비공개 독소항을 심어 놓아, 이를 근거로 회의록 비공개를 고수하며, '심의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공허한 발언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올해 꼭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형 2단계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 주민대표가 빠졌다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와 항목 결정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과정 여부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해당 협의회는 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도 제주도는 “자자체에 실면 누구나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에 사는 주민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요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학버어촌계와 곤올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회복동 회복천 하구 주민과 어민의 거주 환경 및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인근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어정조사범위와 오염저감방안인 구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주도,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주민들의 권리를 앗아갈 건가요? 반드시 주민대표 참여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다시 개회하십시오!



제성마을 뱃나무 두번 죽이는 반성없는 제주시장 규탄한다!

마을 설초와 함께한 뱃나무가 주민 동의없이 제거되어 할매니들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벌였던 제성마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전국이슈로 확산되어, 나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최근 제주시는 도로확장 공사를 벌이며, 할매니들이 소송하지 않고 계셨던 뱃나무 그루터기와 앵가를 제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도로다이어트’, ‘60만! 그루 나무 식재’ 등 제주시의 각종 정책은 단지 ‘호석호’에 불과한 것일까요? 할매니들의 소중한 방법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생각이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올레] 휴식년 오름 사전답사를 다녀왔어요!



사무처 활동가들은 한창 총회 준비로 헤매일 때, 우리 올레 쌤들은 일찌감치 총회를 마치고 2023 휴식년 오름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_+ 멋진 우리 쌤들, 올 한해 활동도 매우 기대됩니다!



[한라생태길라잡이] 매월 진행되는 '역랑강교육'

길라잡이 쌤들도 연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1월에는 공생의 안내로 민오름에서 함께 역랑강 강하하고, 2월엔 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한라생태마을에서 식생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쌤들, 역시 멋조?

제주4.3 과거와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3 참여환경연대 특별강연

강연시청링크
bit.ly/jejuapril

4월 4일 4.3의 배경과 전개 ————— **조성운**

2023. 4. 4. 화 19:00 | 선착순 30명

4월 11일 4.3 특별법 제정운동 ————— **임문철**

2023. 4. 11. 화 19:00 | 선착순 30명

장 소 | 제주시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제주시 관역로 44)

가족이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장: 단체를 아끼고 생각해 주시는 김복임 회원님의 권유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화: 이길주의 철학카페에 함께한 인연으로, 회원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회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 이재정 회원님도 이길주의 철학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원가입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김미옥: 와~ 철학카페에 함께하신 분들이 세 분이요 회원가입을 해 주셨어요. 김미옥 회원님, 반갑습니다! 조만간 얼굴 보어요^^

물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강민철: 강민철 회원님께서 직접 키운 황금향을 한 콘테이너 전해 주셨어요. 덕분에 비단민 총정 완료!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양산: 손재주 장인 윤양산 회원님께서 달고 맛있는 박식병과 페스츄리 빵을 선물해 주셨어요. 맛있게 먹어서, 빵 종류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항상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강하춘: 강하춘 회원님께서도 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매번 항상 챙겨주시는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고재량: 설 연휴 전에 사무실에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사무처 활동가들에게 맛있는 꿀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꿀감 덕분에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주신 당근도 너무나 달고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준: 이학준 공동대표님께서 사무처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대추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찐한 대추차 향을 맡으면, 절로 건강해 지는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무처 활동가들은 다스리길 힘을 내어 봅시다!

2월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분	세부항목	1월	2월	
수입	회원금수입	7,644,000	8,268,000	
	사업수입	0	60,000	
	특별후원금수입	14,396,015	100,000	
	기타수입	0	4	
	전월이월	13,086,906	25,399,353	
	수입합계	35,126,921	33,827,357	
	지출	인건비 (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적립 등)	7,087,092	6,553,050
		사무용품비	2,240	0
		도시인쇄비	40,000	40,000
		통신비	56,700	154,400
세금과공과		220,530	0	
회의비		29,750	37,190	
자금수수료		411,590	391,630	
수도광열비		341,440	240,100	
복리후생비		437,500	278,300	
사무용품비		23,980	23,600	
사업비	총사업비	28,000	28,000	
	연대사업비	455,550	609,638	
	출판사업비	528,500	0	
	참여자치사업비	19,696	13,589	
	환경교육사업비	0	0	
	자활사업비	0	38,900	
	정기총회/조직사업비	0	2,082,100	
	기타지출 (회계간 전월 포함)	45,000	0	
	지출 합계	9,727,568	10,490,497	
	이월 총계	25,399,353	23,336,860	

* 회비 CMS 납부시, 3개월까지 소금 적용외(퇴장에 전액 부과시) 2-3달 정도 누적 출금되는 사례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살림살이

※ 사무처의 실수로 명단이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주세요 ^^ _^

구분	세부항목	1월	2월
1월 투영회계	수입 특별후원금	기원지 '여럿이함께슈미다' 발간에 따른 후원금	
	지출 인건비	활동가 생활여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일시승기	
	도시인쇄비	뉴제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 구독료	
	통신비	전화/인터넷 사용료, 사무처 휴대전화 사용료	
	자금수수료	복사기 임대료, 회원관리프로그램(MRM) 사용료, 회계관리(이카운트)프로그램 사용료, 금융결제원 수수료, 장부수기 관리비, 일리스프레터 프로그램 사용료, 구글스토리지	
	수도광열비	2022년 12월 전기료, 2023년 1월 전기료	
	회의비	자민활동가 정기총회에 따른 다과 구입	
	연대사업비	사무처 식대	
	참여자치사업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분담금, 4.3기념사업위원회 분담금, 제2공항 세움 성장 기자회견 공동비 SNS 관련 사업 홍보비	
	2월 투영회계	자금후원금	
수입 사업수입	이차수입		
지출 도시인쇄비	뉴제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 구독료		
통신비	전화/인터넷 사용료, 사무처 휴대전화 사용료		
자금수수료	복사기 임대료, 회원관리프로그램(MRM) 사용료, 회계관리(이카운트)프로그램 사용료, 금융결제원 수수료, 장부수기 관리비, 일리스프레터 프로그램 사용료, 구글스토리지		
회의비	사무처 식대		
복리후생비	사무처, 다과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분담금, 정치개혁추진행동 분담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담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기총회 참석에 따른 항공료 및 교통비		
참여자치사업비	SNS 사업홍보비		
자활사업비	자활 커피구입비		
정기총회	정기총회 대외료, 물품구입비, 케이터링비, 자료집 인쇄비 등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우리단체를 원하게 하는 방법! → 회원가입과 후원을 권유해 주세요.
| 회비납부 또는 후원계좌 | • 제주은행 12-13-001231 • 농협 901022-55-000435 (예금주: 제주참여환경연대)
T. 064-763-0844 F. 064-722-8789 M. 010-8506-0844(문자) H. www.jejungo.net F. facebook.com/ngojeju